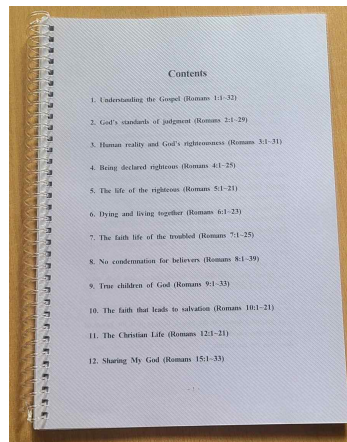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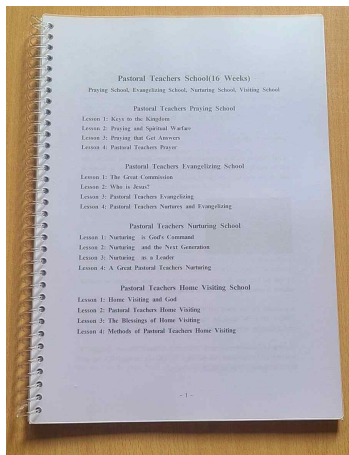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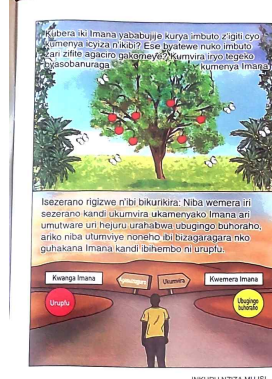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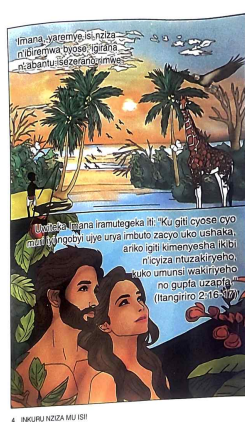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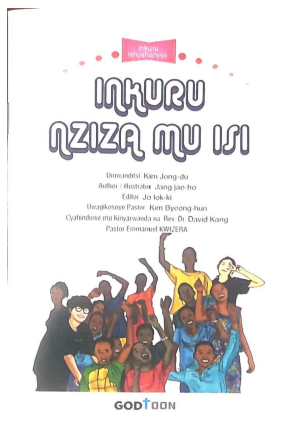
4월 르완다 소식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제가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나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과분하게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성경은 나를 알려진 존재(요한복음 10:14), 선택받은 존재(에베소서 1:4),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한일서 3:1)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므로(갈라디아서 2:20),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왕좌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Pamela Nikita Nyide의 ‘To Survive in This World You Need a Strong Identity in Christ’의 글에서**

1. 르완다 장로교회 교회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번역 작업을 하려니 속도는 느리지만 필요한 교재들이 완성 되어질 때의 기쁨은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자료들이 잘 완성되도록 건강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후원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복음 만화 전도 책자를 아프리카 버전으로 제작해서 지방 구석구석을 다니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만화 전도지를 받고서 모두가 저에게 무라코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인쇄비용이 너무 비싸 필요한 많은 물량을 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주시는 대로 전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해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부활절을 맞아 달걀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영어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달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하던 행사이지만 이곳에서는 처음입니다. 예쁜 포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때보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쁜 포장지를 준비해서 모든 교인과 좀 더 의미 있는 나눔 행사를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기도 제목)

1. 한국의 정치,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올해는 르완다 제노사이드 31주년입니다. 추모 기간에 여러 행사가 진행됩니다. 르완다가 과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동아프리카에서 성장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5월 15일에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어 사역이 중단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준비하려면 교회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필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후원교회와 성도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달러의 상승으로 르완다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집 임대료 인상 요구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늘 도우시겠다는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4. 최근에 르완다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어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서 목의 통증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른 때보다도 건강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교회의 요청으로 영어예배와 현지어 예배에 설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말씀 사역과 교회 교육 교재 번역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르완다 강 일 용 선교사 드림